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추이와 1만달러시기의 국제비교

95년중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규모(경상GNP)는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교역규모는 2,603억달러로 세계 13위(94년 기준) 국가로 부상하였음.

경제구조면에서도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최종 소비지출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설비 및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음. 또한 앵겔계수가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전반적으로 선진국형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도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주택 보급률,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 비중 등 주요 사회지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 비중 등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등을 반영하여 주요국의 1만달러시기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 경제력

○ 95년중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경상 GNP)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이듬해인 63년의 27억달러보다 167배 증가한 4,517억달러(세계 11위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은 101배 증가한 10,076달러(세계 32위 추정)에 이름.

\*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기 : 미국(78년), 독일(78년), 프랑스(79년), 일본(84년), 영국(86년), 싱가포르(89년), 대만(92년)

○ 또한 95년중 교역규모도 63년의 6.5억달러보다 400배 증가한 2,60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94년 기준으로 전세계 교역액의 2.3%를 차지하여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63~95년중 승용차생산은 1,821배, 조강생산은 184배 증가하였으며, 도로총연장, 총발전량도 각각 2.6배(63~94년중), 84배 늘어났음.

## 2. 경제구조

○ 63~95년중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43.4%에서 6.6%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6.3%, 36.3%에서 27.2%, 49.9%로 높아져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기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일본(3.3%), 미국(2.9%) 등 주요국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일본(55.5%), 미국(63.1%) 등 주요국보다 낮게 나타났음.

○ 지출구조는 국내총생산(명목 GDP)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의

〈표-1〉 경제력 변동추이 및 국제비교

단위: 억달러	한국			일본 (84)	미국 (78)	독일 (78)	대만 (92)
	1963(A)	1995p(B)	B/A				
경상GNP(억달러)	27	4,517	167	12,675	22,546	6,419	2,163
1인당GNP(달러)	100	10,076	101	10,555	10,129	10,470	10,470
교역규모 (통관기준, 억달러)	6.5	2,603	400	3,059	3,319	2,642	1,536
승용차생산(천대)	1.1	2,003(5)	1,821	7,073	9,177	3,901	429
조강생산(백만M/T)	0.2	36.8(6)	184	106	124	41	11
선박 건조(천G/T)	-	5,663(2)	-	9,711	902	600	70
도로총연장(천km)	28	74 <sup>1)</sup>	2.6	1,125	6,251	482 <sup>2)</sup>	20
총발전량(천GWh)	2.2	185	84	649	2,286	352	101

〈주〉 1) 94년 자료임 2) 79년 자료임

3) < > 내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기, ( ) 내는 세계순위를 각각 나타냄

비중이 92.0%(63년)에서 63.3%(95년)로 크게 낮아진 반면 설비 및 건설 투자의 비중은 기업의 높은 투자욕과 지속적인 주택건설 등을 반영하여 각각 5.3%, 8.3%에서 13.2%, 23.4%로 높아졌음.

- 최종소비지출 비중은 미국(79.8%), 일본(69.2%) 등 주요국의 1만달러시기보다 낮은 반면 설비 및 건설투자는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났음.
- 가계소비지출중 음식료품·담배 구입비의 비중(엔겔계수)은 55%(70년)에서 28.2%(95년)

로 크게 낮아진 반면 여가선호 경향 확산 및 승용차보유 급증으로 교육·문화·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비중이 각각 5.7%, 6.0%에서 13.0%, 13.4%로 높아졌음.

- 주요국의 1만달러 시기와 비교하면 엔겔계수와 교육·문화·오락비 비중은 다소 높은 반면 교통·통신비는 미국(16.8%)보다는 낮으나 일본(10.0%)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중 근로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

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와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반영하여 30.7%(63년)에서 60.7%(95년)로 높아졌음.

- 그러나 미국(73.9%), 일본(68.9%) 등 주요국의 1만달러 시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95년중 총저축률과 국내 총투자율은 36.2%, 37.5%로 63년의 14.4%, 17.0%보다 크게 높아졌음.
- 총저축률과 국내 총투자율을 주요국의 1만달러 시기와 비교하면 미국(20.9%, 21.2%), 일본(30.8%, 28.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표-2〉 경제구조 변화추이 및 국제비교(경상가격 기준)

(단위 : %)

	한국		일본 (84)	미국 (78)	독일 (78)	대만 (92)
	1963	1995p				
산업구조 <sup>1)</sup>						
농림어업	43.4	6.6	3.3	2.9	2.5	3.5
광공업 (제조업)	16.3 (14.7)	27.2 (26.9)	30.0 (29.7)	26.1 (23.6)	34.9 (34.1)	33.4 (32.9)
건설업	2.9	14.1	8.0	5.3	6.1	5.2
서비스업 <sup>2)</sup>	36.3	49.9	55.5	63.1	53.8	55.0
지출구조 <sup>1)</sup>						
최종소비지출 (민간)	92.0 (81.0)	63.3 (52.9)	69.2 (59.4)	79.8 (62.8)	76.4 (56.7)	73.3 (55.8)
설비투자	5.3	13.2	10.6	8.6	8.2	11.3
건설투자	8.3	23.4	17.1	11.4	12.5	11.9
가계소비지출중 비중						
음식료품·담배	55.0 <sup>3)</sup>	28.2	22.9	15.9	25.4	29.0
교육·문화·오락	5.7 <sup>3)</sup>	13.0	9.7	8.7	10.7	17.3
교통·통신	6.0 <sup>3)</sup>	13.4	10.0	16.8	15.9	13.4
노동소득분배율	30.7	60.7	68.9	73.9	71.4	65.2
저축 및 투자						
총저축률	14.4	36.2	30.8	20.9	22.8	28.0
국내 총투자율	17.0	37.5	28.0	21.2	21.4	23.8

〈주〉 1) 명목 GDP에 대한 비중임 2) 정부 및 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 포함  
3) 70년 자료임 4) 〈 〉내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기를 나타냄

### 3. 사회지표

-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발전과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반영하여 63년의 56.6%에서 62.0%(95년)로 높아졌음.
- 일본(63.4%), 미국(63.2%) 등 주요국의 1만달러 시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소득증가 및 여가 선호경향의 확산으로 54.4시간(63년)에서 50.0시간(95년)으로 줄

〈표-3〉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추이 및 국제비교

	한국		일본 (84)	미국 (78)	독일 (78)	대만 (92)
	1963	1995				
〈노동〉						
경제활동참가율(%)	56.6	62.0	63.4	63.2	54.4	59.3
(여성)	37.0	48.3	48.9	50.0	38.7	44.8
제조업근로시간(주당, 평균)	54.4	50.0	41.7	40.4	41.6	47.2
〈보건·의료〉						
의사수 (인구만명당, 명)	3	13	15	20	21	11
보건의료비 지출의 대GNP 비중(%)	1.9(70)	3.6	6.5	7.9	7.2	3.3
〈교육·연구〉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인구만명당, 명)	49	523	200	506	181	260
교사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명)	61	28	24	18	21	26
과학기술 연구원수 (인구만명당, 명)	1	26(94)	31	26	26	23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 비중(%)	0.2	2.6(94)	2.4	2.1	2.4(79)	1.7
〈문화생활〉						
주택보급률(%)	75.3(65)	84.2	111(83)	110	102	99
승용차보유 (인구만명당, 대)	4	1,339	2,262	5,237	3,460	1,462

〈주〉 〈 〉내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기를, ( )내는 자료의 해당연도를 각각 나타냄

- 어 들었음.
- 미국(40.4시간), 일본(41.7시간) 등 주요 선진국의 1만달러 시기에 비해서는 8~9시간 정도 긴 수준이며, 대만(47.2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만명당 의사수는 3명(63년)에서 13명(95년)으로 늘어났으며, 정부 및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에서 3.6%(95년)로 높아졌음.
- 그러나 미국(20명, 7.9%), 일본

- (15명, 6.5%) 등 주요 선진국의 1만 달러시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인구만명당 49명(63년)에서 523(95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명(63년)에서 28명(95년)으로 크게 줄었음.
- \* 대학(전문대, 방송통신대, 개방대 포함), 대학원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만달러 시기의 미국(506명)과는 비슷하나, 일본(200명), 독일(181명)

등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만달러 시기의 주요 선진국(18~24명)은 물론 대만(26명)보다도 많은 수준임.

- 연구·기술분야에서는 63년에 인구 만명당 1명에 불과하였던 과학기술 연구원수가 26명(94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비중도 0.2%(63년)에서 2.6%(94년)로 크게 높아졌음.
- 연구원수는 1만달러 시기의 일본(31명)보다는 적으나 미국, 독일 등과는 비슷하며,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비중은 1만달러 시기의 일본(2.4%), 독일(2.4%)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돌고 있음.
- 문화생활면에서는 주택보급률이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75.3%(65년)에서 84.2%(95년)로 높아졌으며, 승용차 보유대수도 개인승용차의 큰 폭 증가에 따라 인구 만명당 4대(63년)에서 1,339대(95년)로 늘어났음.
-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기의 주요 선진국 수준(102~111%)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만(99%)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

〈한국은행, 한은정보 '96. 5월호〉